박사학위논문 단행본으로

근현대 한국 비구니 문중 흐름사

한국의 비구니 문중

하춘생 지음
해조음 펴냄
2만3000원

한 분야서 20년 이상 연구에 매진한 사람은 분명 장인정신이 투철한 이다. 이번에 동국대서 박사학위를 받고 최근 논문초록을 모아 책을 펴낸 하춘생 박사(사진 · 우성불교학콘텐츠연구소장 · 동국대 불교대학 외래교수)도 그런 인물중 하나다. 불교계에서는 드물게도 '비구니 스님' 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왔다.

그동안 쓴 논문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한국 근 · 현대 비구니의 문중형성과 그 의의〉 〈근 · 현대 비구니사의 전개와 문중확립〉 〈비구니 본공의 선풍진작과 법맥상승〉 〈한국 근 · 현대 비구니의 강맥전승과 그 의의〉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번 책인 〈한국의 비구니문중〉도 그런 연장선상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저자의 지인들은 "전생에 비구니 스님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한다고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비구니승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야 하는 당위성은 교단내 인격 평등성을 구현해 불교의 발전적 미래를 담보해야 한다는 소명"때문이라고 서문에서 밝힌다.

즉 현재 한국불교의 현실인 비구 중심의 교단운영체계로는 부처님 근본 가르침인 화합승가의 구성이 어렵다고 봤다.

그래서 저자는 우선 비구니 문중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문중의 실체를 드러내고 문중별 법계 현황을 밝혀내면 족벌의식 운운하는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비구니 승가의 위상정립과 불교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다.

저자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의 사료 연구를 통해 신라에 불교를 전한 아도화상을 은거시켰던 모례의 누이 사씨(史氏)를 한국불교의 첫 비구니로 꼽는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국가의 출가승인제도에 의거해 대체로 왕실 또는 지배층의 비구니원이었던 정업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저자는 고려말 정업원의 주지 묘봉 · 묘덕 · 묘간 · 묘신 등 수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출가한 사실도 밝혀낸다.

하지만 조선시대 숭유억불의 시대적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급기야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비구니 스님 배출의 산실이었던 왕실비구니원이 자취를 감춘다. 그러나 조선후기 이후부터 비구니 스님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근현대로 접어들며 비구니 고승들의 출현을 예고한다.

이 책이 전문학술서로서 빛을 발하는 대목은 바로 한국불교사상 최초로 근 · 현대 비구니 세계의 전개방식과 현황 및 문중형성은 물론 계보까지 상세히 밝혀 낸 것이다.

신라때 모례의 누이 사씨가 첫 비구니
현재 한국비구니 형성 문중은 10여개
비구니 승가 위상정립 방안 8가지 제시

저자는 이 책에서 오늘날 한국 비구니승가를 형성하는 문중은 청해 계민 법기 삼현 수정 봉래 육화 실상 보운 일엽 보문종 등 10개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들 문중은 각각 초조 내지 개창조를 세워 문중계보를 정리하고 세계를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 저자는 한국 비구니 승가는 근현대기를 지나며 독립적 위상을 확보한 가운데 스스로 지율, 지선, 지혜자로서의 위의를 확보하고 함께 출가본연의 전통 승풍을 크게 진작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저자는 비구니의 문중형성이 던져주는 한계와 과제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그리고 합리적 대안도 제시한다. 우선 각 문도회가 추존한 당해문중의 초조 내지 개창조를 비롯해 세계를 형성하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사실적 행장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은상좌연의 세계 방식을 지율, 지선, 지혜의 삼학체계로 세분화해 그 사상성을 구명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와함께 비구니 스님의 현황파악과 전국비구니회를 연계한 위상정립시스템 구축도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결론 차원으로 비구니 승가의 위상정립 방안 8가지를 제시한다. △교단내 성차별에 대한 의식구조 개선 △수계절차 일원화 △비구니의 교단 참정권 확대 △'팔경계법' 위시한 성차별적 계율 폐기 △비구니 스님의 사회적 기능확대 △비구니총림 설립 및 비구니본사 확보 △전국비구니회의 조직력 강화 △비구니 연구시스템 상설가동 등이 바로 그것이다.

광우 스님(前 전국비구니협회 회장)은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은 그동안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한국 비구니 문중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비구니 승가의 자존과 위상정립방안까지 제시한 책"이라며 "비구니 문중의 사자상승 법맥구도를 밝혀 줌으로써 그동안 곡해되고 소외된 비구니 승가의 위상을 현실속에 드러내주는 가장 실질적인 책"이라고 평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현재' 를 벗어나지 않는 〈신심명〉 강의 해설

지혜로운 삶 1,2

우학스님 펴냄 | 각권 1만1000원

중국 선종(禪宗)의 제3조(祖)인 승찬(僧璨) 스님이 쓴 〈신심명(信心銘)〉은 자체가 워낙 뛰어 나지만 1권, 146구(句) 584자로 아주 짧은 글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팔만대장경과 1,700 공안의 요지가 모두 함축돼 있다고 할 만큼 내용과 수준이 높아 지난 1400여 년 동안 널리 대중에게 읽혀지고 있다.

이 〈신심명〉은 뛰어난 내용 못지않게 '승찬' 이라는 개인이 가진 이력을 통해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한다.

승찬 스님은 출가 전 우리가 흔히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한센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그는 대도인(大道人)을 만나면 병이 나을까 하는 생각에 선종의 2조인 혜가 스님을 찾아 간다. 어렵게 혜가 스님을 만난 승찬 스님은 이렇게 부탁했다고 한다. "저는 나병을 앓고 있습니다. 과거에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봅니다. 어떻게 참회하면 병이 낫겠습니까? 스님께서 참회시켜주십시오."

그러자 혜가 스님은 말한다.

"그대가 죄가 많아서 그런 병을 앓고 있다고 하니, 그 죄를 나에게 보인다면 그 죄를 내가 참회시켜주겠다."

이 답은 혜가 스님이 그의 스승인 달마대사를 찾아갔을 때 주고받던 것과 유사했다.

〈신심명〉의 핵심은 중도다. 이는 미움과 사랑, 거스름과 따름, 옳고 그름과 같은 중생의 분별심과 편견을 여의게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교 경전이 그러하듯 이 〈신심명〉 또한 보통의 현대인들이 단박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신심, 믿는 마음' 이라 하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인지, 믿는 마음을 어떻게 어디에 새긴다는 말인지, 또는 이 믿는 마음에 대해 세삼 명심할 바가 무엇인지 제목부터 어렵다.

이런점에서 이번에 출간된 우학스님의 〈지혜로운 삶 1 · 2〉는 〈신심명〉을 강의하듯이 쉽게 풀었다.

"〈신심명〉의 신심은 자기의 참마음 자리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의 부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진실의 자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둘이 아닌 마음, 중도의 자리에 앉은 마음, 모든 대립을 초월한 자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다 포섭하는 마음이고 모든 우주 진리를 깨친 마음이고, 절대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신심명〉의 핵심인 중도와 신심이 어떤 관계인지 금방 이해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저자인 우학 스님은 이렇게 중도와 믿는 마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즉 모든 대립을 초월한 자리, 모든 것을 포섭하는 중도의 자리에서라야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바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절 공양간의 반찬이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짜네, 싱겁네 하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절에 갈 수 없다고 말을 해요. 물론 공양간 음식이 맛있으면 좋겠지만 하루에 다녀가는 사람만도 수백, 수천 일 때가 많은데 그 많은 입맛을 맞추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반찬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절에 다니는 이유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아니잖습니까? 법당이 지저분해서 절에 안 다니고, 공양간 밥이 맛없어서 안 다니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고 배려하면 덕을 보는 것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이와 같이 우학 스님의 〈신심명〉 강설은 쉽다. '지금' '여기' 를 벗어나 있는 법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 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실참으로 이어진다. 관념의 생각을 넘어 행동하는 불자, 실참을 통해 스스로 성취하는 불자를 강조한다. 더욱이 안으로의 깨달음을 통해 탈락신심, 즉 전 우주적으로의 회향까지 언급한다. 바로 이 책이 딱딱한 경전을 풀이한 책임에도 술술 읽혀지는 이유다.

김주일 기자

"바른 자세로 앉아 있을 때의 마음 상태 그 자체가 깨달음"

선심초심

스즈키 순류 지음 | 정창영 옮김
김영사 펴냄 | 1만3천원

19세기 후반 무렵 일본 학자였던 스즈키 다이세쓰(鈴木大拙)는 처음으로 서구에 동양 불교의 선사상을 소개했다. 이후 1950년대, 역시 일본 승려인 스즈키 순류는 미국으로 건너가 불교의 선사상이 꽃피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스즈키 다이세쓰가 인류 문명이 위기에 처한 원인이 서양의 합리주의에 있다고 보고 서구에 동양적인 직관, 곧 선사상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면, 스즈키 순류는 미국 최초의 선 수행 센터를 열어 선을 지도하며 서구 세계에 선 수행 방법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데 힘썼다.

그의 이런 행보는 히피문화의 발현, 시민권 운동, 신좌파운동 등으로 혼란스럽던 1960년대 미국 사회에 문화적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스티브 잡스 또한 젊은 시절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책으로 〈선심초심〉을 꼽기도 했다.

〈선심초심〉은 스즈키 순류 선사가 살아생전 남긴 유일한 책이다. 그는 많은 강연을 하였지만, 책은 남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그가 우리에게 남기고 떠난 유일한 말씀이다. 마치 살아 계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선 수행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상하게 알려주어 출간 이후 40년 동안 전 세계인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25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내용은 쉽고 단순하다. 단순하지만 가르침은 심오하다. 한국 임제종의 간화선과 달리 일본 조동종의 선은 일상 속에서 그저 마음을 비우고 앉는 것 그 자체에 주목한다. 굳이 앉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도 선의 깨달음이 있다고 말한다. 그의 철저한 일상성은 많은 미국의 수행자들을 당혹스럽게 하였지만, 한편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깨달음은 어떤 기분 좋은 상태나 어떤 특별한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있을 때의 마음 상태, 그 자체가 깨달음입니다. 좌선에 들었을 때 그대들의 마음 상태에 만족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대들의 마음이 아직 방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정확한 자세로 바르게 앉아 있다면 이미 바른 마음 상태가 된 것이니까요. 이것이 불법의 결론입니다."

〈선심초심〉은 앉는 자세에서 시작한다. 좌선을 할 때 어떻게 바르게 앉을 것인지 호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식의 흐름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 좌선을 마친 뒤에 왜 절을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수행 방법들을 소상하게 소개한다.

또 육바라밀 등 불교의 기본 교리도 선 수행과 결합하여 쉽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선 수행을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들도 무리 없이 수행의 세계에 입문할 수 있게 돕는 가장 적합한 가이드다. 달마대사, 도겐 선사, 마조 스님 등 고승들의 예화나 불교 경전의 내용을 적절히 사용하여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간명하고 단순한 가르침을 이해하기도 쉽다.

선은 좌선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좌선의 마음가짐을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오는 것이야말로 진짜 수행이다. 스즈키 순류는 그 점을 특히 강조한다.

"고통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며 기쁨이 슬픔이 될 수 있고, 선이 악이 될 수도 있는 진리를 좌선을 통해 고요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한다. 현실 속 참을 수 없는 고통조차도 이런 진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나면 인생을 무너뜨릴 만큼의 거대한 파고가 되지는 못한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집중한다면 그것이 바로 좌선이다. 어떤 특별한 방식도 없다. 그저 온 마음으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지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진리 또는 불성을 가진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수행이다. "불성은 우리의 진정한 본성"이다. 우리 안의 불성을 믿고 그저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수행이다.

일상 속 수행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 책을 다 읽고 마지막 장을 덮을 때쯤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을 뿐만 아니라 참된 지혜의 불빛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1강좌 :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 질병을 좌우하는 몸속에 숨은 영가를 찾아내어 조상령인지 객영혼인지를 확인하는 비법전수 수련법 최면이 아님 환자의 몸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방법 – 전문가 강좌

인간체온의 비밀 – 38.5도의 내장온도, 냉병 특히 영가질환 냉병이므로 내장의 진동주파수 상승, 체온상승으로 영가밖으로 나오는 과정을 통해 영혼에게 빛을 보게 만드는 과정

1. 영적인 수련을 통해 환자의 몸에서 영가확인 2. 일반병, 정신병, 영가장애질환의 구분
3. 영가의 수준파악. 저급영가 : 한과 집착, 중급영가 : 진리를 찾아 방황과 혼동
고급영가 : 깨달음에 대한 갈망
4. 난치병과 불치병 뒤에 숨은 영가확인
매주 – 월 , 수 , 금 / 수련 – 오후 2시 / 보시금 1회– 10만

※개인적인 전수는 수련 후에 상담 –자신이 체험하는 과정

2강좌 : 강좌. 알기쉬고 이해하기 쉬운 인간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법
3기 힐링분석상담사교육생모집 (누구나 저렴한 교육비)
힐링분석 상담사란?–일반, 전문가 강좌

민간가격증으로 인체에 흐르는 기 흐름을 감지하여 그 사람의 현재의 문제점 감정, 의지, 정신의 사용유형을 읽어, 영적인 치유와 건강, 심리 궁합, 직업, 적성, 인성을 개발 상담해주는 전문가로 활동한다.

미국의 다우징 기법을 통한 40가지 에너지도형 분석법

1. 일반인반 4회 책자 2. 전문가반 6회 책자

매주 화 , 목, 토요일 오후 2시 공개강좌및 강의

3강좌 : 강좌 – 효소찜질요법 (수련원에 설치완비)
기(氣)감이 없고 마음이 경직된 분을 위한 수련이 필요 없는 효소열을 이용하여 경직된 근육과 모세혈관을 열어 각종 암, 아토피, 우울증, 불면증, 상기병, 고통사고후유증, 중풍, 마비, 관절염, 냉병. 산후조리, 효소찜질의 원리를 이용한 수련비는 1회 3만원 난치병,암, 중풍후유증, 각종 냉증질환, 몸에서 안 빠져나가는 영가 확인후 찜질을 통한 몸을 이완하여 영가가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과정을 거쳐 천도하는 방법이 있다.

인체전기 파동의학

043)296-5258 / 010-9242-5259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42-21 바우빌딩 5층 (청석고와 청운중사이)

영혼은 몸을 통해 이야기하기에 ,진실을 체험하게 해주는 건 우리의 몸이다.